전남 쌀 '풍광수토' 2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판매 등 2년 연속 100억원 돌파
지난해 전남 품종 '새청무' 추가해 재배 안정성·품질 강화

전남 쌀 대표 공동 브랜드인 '풍광수토'가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2021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풍광수토'가 '2021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에서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에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매년 열린다. 소비자에게 소비 이상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제품이나 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소비자전문가 및 기업연구소 1차 심사와 한국명가명품연구소 2차 심사를 통해 한국소비자협회가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풍광수토'는 전남 쌀 공동 브랜드로, 남녘의 신선한 바닷바람(風), 풍성한 햇볕(光), 깨끗하고 맑은 물(水), 오염되지 않은 기름진 흙(土)에서 재배했다는 뜻을 지녔다.

풍광수토는 지난 1994년 도(道) 단위 쌀 광역 브랜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며 출발했다.

지난 2017년 밥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신동진 품종으로 단일화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전남 벼 품종 '새청무'를 추가해 품질을 강화했다. 새청무는 수확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매우 높다. 미질과 밥맛도 좋다.

풍광수토는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포장재 규격과 디자인에 대한 규약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남 쌀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풍광수토 관리위원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6가지 생산기준과 수분 함량 14.6~15.5% 기준, 단백질 함량 '우' 이상, 쌀 등급 '상' 이상 등 품질 기준을 세웠다. 생산에는 전남 11개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이 참여하고 있다.

풍광수토 매출액은 지난 2017년 6억원, 2018년 43억원에 이어 2019년~2020년 2년 연속 100억 원 이상 매출액 돌파를 기록했다.

풍광수토는 온라인 쇼핑몰과 수도권, 제주, 영남 소비층을 공략하면서 지난 한 해 130억원 판매됐다. 지난해 TV홈쇼핑에 10회 방송되며 19억원 물량이 안방 소비자를 만났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7억원을 넘겼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소비자에게 엄격한 생산·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 고품질 쌀 생산을 약속한다"며 "청정 전남에서 생산된 쌀 대표 브랜드 '풍광수토'를 많이 사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토'의 '2021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2년 연속 선정을 축하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미래 농업·농촌 이끌 청년조합원 확대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1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청년조합원 확대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조합원을 전남으로 끌어올 전략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청년 조합원 3년 새 1400명 감소
청년농업인 육성·증대 운동 등 실시

전남지역 청년 농협 조합원이 3년 새 1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청년 조합원 수는 2018년 기준 1만3619명에서 지난해 말 1만2219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400명(10.3%) 감소했다. 청년 조합원은 197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45세 미만이 대상이다.

전남본부는 청년 조합원 감소세에 대해 낮은 농업소득과 청년조합원 유입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청년조합원 증가 대비 나이 증가로 인한 청년 조합원 자연 이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남본부는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을 발굴하고 청년조합원 가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1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본부 대강당에서는 '청년조합원 확대 추진 전략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전남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및 단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조합원 확대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전남본부는 지역 농축협 조합원 감소·고령 조합원 증가로 인한 사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년조합원 증대에 힘쓰고 있다.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금·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자재 구입 혜택, 농업 관련 교육 및 견학, 농산물 출하·판로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자산관리 광주전남지사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부실 채권 관리 등 지원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는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돕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사는 장성농협과 최근 장성군 장성읍의 한 농가를 방문해 생필품과 건강 검진권을 전달했다. 이 농가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으로 채무를 감면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대상은 지역농협과 농업인 신용회복 상담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이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일손을 돕고 생필품을 전달하며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농업인들이 재기하는 것을 돕는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 채권 관리, 임대차 조사, 농업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 등을 맡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파트팜·연료전지 융합, 전기생산·난방비 문제 잡는다

농어촌공사 실증연구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과 연료전지를 융합, 전기생산과 난방비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실증연구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팜 농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이른바 지능화된 농장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각종 시설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공급·측정하는 등 제어하거나 구동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팜이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난방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이 모델은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시설원예에 투입하고 열은 난방에, 발전에너지(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한 뒤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이 모델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발전사가 전기생산에 참여하는 두 가지 형태다. 특히 발전사 참여형 모델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가 시설원예 근처에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 인근 농가에 열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이 경우 발전사가 난방시설 설치비와 유지보수를 하는 만큼 농가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경남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해 토마토 온실 옆에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 경제성과 생산성 등을 예측한다. 올해 실증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거나 발전사가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평가해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에 완도산 전복 수요 급감…이마트 40% 할인 판매

광주·전남 7곳을 포함한 이마트가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완도산 활전복을 40% 할인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할인은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격은 kg당 2만5800만원(중·18미 내외)과 3만1800원(특·12미 내외)으로 나뉜다.

이마트는 지난 한 달 동안 전복 주산지 완도에서 총 40t 물량을 공수했다. 경기 하남, 거제 등지에 있는 계류장을 활용해 전국에 싱싱한 완도 전복을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완복 출하량은 1년 전보다 8.3% 늘어난 2893t을 기록했지만, 전복 산지가격은 최근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전복 12미 평균 가격은 2만5933원으로, 1년 전(3만200원)보다 14.1%(4267원) 하락했다. 전복 20미 가격도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20% 떨어졌다.

전복 생산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식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복 수출량(194t)과 수출액(491만 달러·55억원)은 전년보다 각각 23.6%,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같은 기간 동안 '온가족 손질 민물장어'(대·700g)를 회원 대상으로 기존보다 40% 할인한 2만9400원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